

金鐘漢과 金素雲의 정지용 시 번역에 대하여

- 『雪白集』(1943)과 『朝鮮詩集』(1943)을 중심으로

심 원 섭*

차 례

- | | |
|---------------------------|-----------------|
| I. 서론 | III. 번역 스타일의 문제 |
| II. 김종한과 김소운이 선택한 정지용 시편들 | IV. 결론 |

I. 서론

근래의 분석적 연구성구들에 의해 그 빛이 상당 정도 희석된 감은 있으나,¹⁾

*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객원교수

- 1)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연구로서, 김소운의 번역작업 전반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석적 연구이자 치명적 비판이 가해진 성과로는,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金素雲は何をしたのか」, 『比較文學研究』 79(東大比較文學會, 2002.2.28) (「김소운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서울:소명출판, 2003에 증보하여 재수록됨. 본고에서는 후자를 참조)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같은 맥락의 연구로서 이뤄진 것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김윤식, 「김소운과 조선시집의 사상」 『지상의 빵과 천상의 빵』(김윤식, 서울:솔, 1995)을 들 수 있다. 이외 일본인에 의해 이뤄진 김소운 연구사는 梶井陟 「金素雲論」 『朝鮮研究』 46호(1965.10), 동 「金素雲, 藤干生大の朝鮮詩論争」 『朝鮮文學-紹介と研究』 2호(1971.3), 동 「朝鮮文學, 翻譯の足跡」 季刊

한국 근대시선집들을 일본에서 연속적으로 출판한 이래,²⁾ 일본 문화계에서 ‘신 화적’ 명성을 누려온 김소운(金素雲)이, 한국시의 일본 소개사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³⁾

그런데, 한국시의 일본 번역사에서는 물론, 김소운의 역시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朝鮮詩集』(1943.8)이 출간되던 당시,⁴⁾ 한국에서 또 하나의 역시집이 출간된 사실은, 소수의 일본인 연구자들 외에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바 없다.⁵⁾ 『朝鮮詩集』이 나오기 한 달 전인 1943년 7월, 『문장』 출신의 시인·비평가이자, 최재서와 함께 『국민문학』의 편집자로도 활약하던 김종한(1914-1944)이 출간한 일역시집 『雪白集』(博文書館)이 그것이다. 동시에 출간된 두 시집 중 하나는 문학사의 각광을 받고 하나는 사장되다시피 되어 온 이 현상은, 그것 자체가 이미 검토를 요하는 문학사적 사건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설백집』이 번역시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를 규명하는 한편으로, 김소운의 『조선시집』이 누리고 있는 ‘신

『三千里』27호(1981.8), 白川豊, 『金素雲の日本語譯詩について』,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白川豊, 大學教育出版, 1995.7) 등 참조. 梶井陞의 논문에 관한 사항은 白川豊의 앞 책에 의한 것임.

- 2) 김소운의 주요 역시집을 시기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乳色の雲』(東京:河出書房, 1940), 『朝鮮詩集』 전기·중기(東京:興風書館, 1943), 『朝鮮詩集』(東京:創元社, 1953), 『朝鮮詩集』(岩波文庫, 1954), 『現代韓國文學選集』 제5권[詩集](冬樹社・同和出版公司, 1976)
- 3) ‘김소운 신화’의 구체상에 대한 국내의 언급으로는, 김윤식의 앞책 182-184쪽, 임용택, 『金素雲, 『朝鮮詩集』의 세계』(東京:中公新書, 2000.10) 233-247쪽, 외에 사에 구사 도시카쓰의 앞 논문(한국어) 291쪽, 335쪽 참조.
- 4) 김소운의 역시집 중에서 『朝鮮詩集』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서지적 조사는 白川豊의 앞 논문 p.84 참조.
- 5) 일본인 연구자들의 경우는, 본격 연구논문으로 大村益夫의 『金鐘漢につい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朝鮮歴史論集下』(1979.3), 藤石貴代の 『金鐘漢論』(『九州大學東洋史論集』, 17輯(1989.1)가 있다. 한국인에 의한 김종한 연구는, 김달수, 유정 등 초기의 단편적인 인상이 및 회고담(참고문헌 참조) 외에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서울: 평화출판사, 1966)과 그 논리를 이어받은 김광림, 『김종한 소론』(『박남수·김종한』한국현대시문학대계21, 지식산업사, 1982) 이후에는 오랜 침묵이 계속되다가, 김종한을 부분적으로 다룬 임용택의 앞 책이 근래 나온 것이 전부다.

화성'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목표를 두고 논의를 해가고자 한다. 검토 대상으로서는, 『조선시집』에 수록된 작품 수가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설백집』과 『조선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지용 시를 중심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검토 방법론으로서는 작품 선택의 문제, 구체적인 번역 스타일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II. 김종한과 김소운이 선택한 정지용 시편들

김종한의 『설백집』은 壽之章, 福之章, 富之章, 貴之章, 囍之章의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편의 번역시 및 본인이 직접 쓴 일어 창작시 6편, 모두 합쳐 총 2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총 105쪽에 달하는 소규모 시집인데, 우선 수록 작품들과 작자명을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善夫孤獨>(序詩)
 壽之章
 <白鹿潭><冬籠り><九城洞><朝餐><崑崙峯><玉流洞><長壽山><瀑布><躑躅>(이상 정지용)
 福之章
 <火祭歌>(홍사용), <ながればし>(정지용), <髮の毛><湯藥><焚き火>(이상 백석) <ぬれぎぬ>(김동환), <鳳仙花>(주요한), <赤い手>(정지용), <古井戸のあ風景>(김종한), <晴耕>(김상용)
 富之章
 <杜甫や李白の如く><澡塘にて><南瓜の種子><安東>(이상 백석), <首>(유치환)
 貴之章
 <園丁><合唱について><風俗><幼年>(이상 김종한)
 囍之章
 『あとがき』

이상을 시인별로 나눠 재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지용 ; <백록담> 등 총 11편

백 석 ; <모닥불> 등 총 7편

김종한 ; <낮은 우물이 있는 풍경> 등 총 6편

이외 홍사용 1편, 김동환 1편, 주요한 1편, 김상용 1편, 유치환 1편.

이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역시집은 매우 특이한 구성 방식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역시집은 작품 수록 양이 현저하게 적다. 그리고 역자 본인이 쓴 창작시 6편을 제외한다면, 이 역시집은 마치 정지용과 백석 시에 바쳐진 역시집인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두 시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역자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편제는 이 역시집이 김소운의 『朝鮮詩集』과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즉 김소운이 일본의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근대시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앤솔로지를 제시하려 했다고 본다면⁶⁾, 김종한은 이런 상식적 편집 체제를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을 우선하는 편집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김소운의 작업에 대한 대타의식 내지 김종한의 시적 개성, 그 나름의 특수한 출간 동기 등이 투영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런 내용들이 보다 분명한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는, 역자의 「후기」 내용을 보기로 한다.

가)

시에 관한 한, 나는 자그마하게나마 독재자이고 싶다. 그러니 반도시단의 일람표를 만든다거나 분포도를 그린다든가 하는 흉내가 내게 가능할 리 없

6) 김소운의 『朝鮮詩集(前期)』(興風館, 1943.8)에 수록된 작품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한용운 5편, 김억 8편, 김형원의 2편, 김정식 7편, 김동환 3편, 홍사용 1편, 오상순 1편, 주요한 7편, 조명희 3편, 정지용 12편, 변영로 3편, 박영희 1편, 박종화 5편, 박광양 5편, 이광수 8편, 이상화 1편, 이장희 5편, 양주동 5편, 노자영 1편의 순으로 되어 있다.

『朝鮮詩集(中期)』(興風館, 1943.10)에는 이하운 4편, 허보 4편, 김윤식 4편, 김기림 6편, 김광섭 5편, 김상용 3편, 김태오 4편, 김대준 1편, 김대봉 3편, 김용제 3편, 오희병 1편, 신석정 8편, 조중치 5편, 백석 7편, 박세영 1편, 박용철 4편, 모운숙 4편, 이상 4편, 이찬 3편, 이육사 4편, 유치환 9편, 임학수 3편, 임화 3편, 노천명 5편이 실려 있다.

작품 수만으로 보면, 정지용이 12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치환 9편, 이광수, 김억, 신석정 각 8편, 김정식, 주요한, 백석 각 7편의 순으로 되어 있다.

다.

내가 타인의 시를 번역하거나 편찬하는 것은, 그 시 속에서 나 자신의 분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는 하나의 독립적인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밑줄 : 인용자)

“반도 시단의 일람표를 만든다거나 분포도를 그린다든가 하는 흥내”라는 말은 일본에서 앤솔로지 스타일로 출간되어 명성을 얻고 있었던 김소운의 역시집 『乳色の雲』(1940)의 편집체제를 의식한 발언일 것이다. 김소운의 작업에 대한 일종의 라이벌의식, 그리고 타인의 시를 편역하면서도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강조하는 이런 진술방식 속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직선적 발언을 즐기던 역자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가 번역대상으로 선택한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시적 이상을 제시하려는 의도 내지 적극적인 자기 과시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진술을 본다.

나)

어쨌든, [壽之章]에서는 자연에 관한 것만을 모았다. 전부가 정지용 사백(詞伯)의 시다. 정통적인 반도시인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방식과 그 관점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內地나 支那의 전통적인 시심과 다소 차이가 있으면서도 크게 보면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다음의 [福之章]에는, 반도 농민의 생활이나 풍속을 노래한 것을 모았다. 의식적으로 합리주의적인 문화성과 근대성을 거부하고, 흥에 뿌리내린 자연성과 신화성을 강조한 셈이다. 반도인의 익찬은, 반도라는 일본의 한 지방의 흥에 안심입명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일 곤란한 것은, 반도문화의 현실정かと 관련이 있는데, 웬지 모르게, 민족적인 것으로 혼동되거나 오해받는 경우다. 오래동안 나는 이 이율배반적인 문제로 고민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 즉 반도의 시인들이 아무리 시대와 전쟁을 노래하더라도, 그것이 황국의 한 지방인 반도의 흥과 자연성에 뿌리내리지 않은 한은, 공허한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고말 뿐, 독자에게 감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⁸⁾ (밑줄 : 인용자)

7) 김종한 「あとがき」(『雪白集』博文書館, 1943.7) 97쪽. 藤石貴代・大村益夫・沈元燮・布袋敏博 편 『金鐘漢全集』(東京, 綠蔭書房, 2005.7) 327쪽. 원문은 일본. 이하도 같음. 『金鐘漢全集』은 앞으로 『전집』으로 표기하기로 함.

8) 위의 책, 97-98쪽. 『전집』 328-329쪽.

발언의 배후에 거대한 ‘시국’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물론 “반도인의 억찬”, “반도라는 일본의 한 지방” 등의 언어는, 『국민문학』 편집자였다는 그의 경력과 더불어, 임종국의 ‘친일과 규정’ 이래⁹⁾ 김종한을 따라 다녀온 ‘친일문인’이라는 표찰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는 근거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 문장의 명분이 ‘보다 효과적인 문학적 억찬의 방법론’을 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당시, 적극적인 문단활동을 펼치면서 자기실현을 꾀하는 삶을 택한, 김종한과 같은 유형의 인간 집단의 존재, 그리고 당시 ‘시국’의 폭력성을 상당 용인해 주는 입장에 선다면, 위의 진술은 다른 각도에서 읽어줄 수 있는 문맥을 갖고 있음 역시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정통적인 반도시인의 자연에 대한 느끼는 방식”이라든가, “흙에 뿌리내린 자연성과 신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대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일본문학에 흡수될 수 없는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애써 주장하는 논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무엇보다도 「낯은 우물이 있는 풍경」, 「故園의 詩」, 「系圖」 등, “토속적 서정”의 표현에 집착하고 있는 그의 초기 창작시들이 일찍부터 드러내 온 바이기도 하다.¹⁰⁾

그렇다면 “오래동안 나는 이 이율배반적인 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시국 속에 말려 들어가 “혼을 팔아버”린¹¹⁾ 자

9) 임종국, 앞의 책, 232-239쪽.

10) 김종한이 문학수업 중 처음으로 선택했던 장르는 토속적 서정성이 짙은 대중가요 성향의 민요였다. <임자업은 나룻배> 『別乾坤』현상 당선(1934.2), <베짜는 각시> 『朝鮮日報』 신춘문예(1935.1.3), <알루장 굶이굽이> 『朝鮮日報』 (1935.2.8), <망향곡> 『東亞日報』 신춘문예(1936.1.1), <백두산타령> 『詩建設』 2집(1937.9) 등이 그것이다. 현대시는 그가 2차로 선택한 장르였는데, 그가 정지용의 추천을 거쳐서 시단에 등단할 무렵에 쓴 작품들인 「낯은 우물이 있는 풍경」, 「할아버지」, 「계도」 등의 현대시들은 세련된 이미지즘의 구사와 더불어, 조선의 토속적 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교수도 김종한의 ‘조선의 자연에 대한 신뢰’를 그의 서정시의 핵심적 요소로 본바 있다. 川村湊, 『酔いどれ船の青春』(講談社. 1986.11) 83쪽 참조. 이 면에서는 오오무라 마스오교수와 후지이시 다카요 교수의 견해도 동일하다. 이에 관한 전거 제시는 주 12) 참조

11) 가와무라 미나토, 위의 책, p.78.

로서 이행해야 할 “반도인의 익찬”이라는 현실적 명제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면에서 증폭될 수밖에 없는 “조선문학의 독자성 담보”라는 명제에의 집착, 이 서로 융해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부지어야 하겠는가, 하는 ‘시국 속 지식인’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즉, 김종한은 ‘조선문학의 일본문학에의 편입 내지 해소’를 의미하는 ‘내선일체’의 폭풍 속에서 ‘혼을 파는’ 행동을 취하는 한편으로, 빼앗기기는 하되,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겠다는 의지, 즉 조선문학의 자주적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것은 사실상 당시 그가 즐기치게 주장해 온 “지방주의 문학론”을¹²⁾ 번역을 통해서 실천하려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앞서 밝힌 바, 그가 창작시를 통해서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임과 동시에, 그가 기이해 보일 정도의 편향적 자세로, 정지용과 백석 등의, 향토성 내지 민족적 특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선택한 그 집착적인 행위 속에서도 상당 정도 파악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정지용의 경우에 국한해서, 김종한이 선택한 작품의 목록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원제목	初出	최초수록시집	『雪白集』 수록 제목
白鹿潭	문장 1939.4	『白鹿潭』 1941.9	白鹿潭
忍冬茶	문장 1941.1	『白鹿潭』 1941.9	冬籠り
九城洞	문장 1937.6	『白鹿潭』 1941.9	九城洞
朝餐	문장 1941.1	『白鹿潭』 1941.9	朝餐
毘盧峰	조선지광 1937.6	『白鹿潭』 1941.9	毘盧峰
玉流洞	조광 1937.11	『白鹿潭』 1941.9	玉流洞

12) 당시 ‘신지방주의 문학론’이라고도 불린 바 있는데, 김종한은 당시의 평론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한 바 있다. 김종한의 이러한 주장 내용에 착목하고 그 민족주의적 의지를 평가하려 한 최초의 연구자가 오오무라마스오(大村益夫) 교수다. 大村益夫, 앞의 논문, 204-206쪽 참조. 이외에 앞의 후지이시 다카요(藤石貴代) 교수 역시도 “번역을 한다는 명목으로 언문문학의 존속을 암시한 것인 동시에,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 전통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藤石貴代, 앞의 글, 199쪽 참조. 앞으로 김종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간다면, 이 문제는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친일’론과 더불어 생산적 논의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長壽山	문장	1939.3	『白鹿潭』	1941.9	長壽山
瀑布	조광	1936.7	『白鹿潭』	1941.9	瀑布
진달래	문장	1941.1	『白鹿潭』	1941.9	躑躅
별똥	학조	1926.6	『鄭芝溶詩集』	1935.9	ながればし
붉은손	문장	1941.1	『白鹿潭』	1941.9	赤い手

<별똥>을 제외한 모든 작품이 『백록담』 수록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백록담』에 수록된 작품들, 특히 위에 제시된 <백록담><장수산><비로봉> 등의 작품은, 정지용이 『정지용시집』 시대의 경쾌한 이미지즘과 이국지향적 세계를 넘어, 한국의 신성한 자연 탐구를 통해 “무욕의 철학”¹³⁾, 제한적으로나마 “동양적 정신의 구경”의¹⁴⁾ 한 차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김중환이 ‘내선일체’의 폭풍 속에서 이런 『백록담』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김중환 자신의 시적 개성이나 시관의 해명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보다 풍부하게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지용의 이 작품들이, 한국시의 존립 자체가 위기의 상태에 있었던 1940년대 전후를 뚫고 솟아오른 수작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 수준 역시도 한국시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의 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 김중환은 이러한 세계를 자신의 시관의 한 정점에 두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싶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지를 조선과 일본에 과시하고 싶었다는 점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지용의 이 작품들이, 그의 초기작들과는 달리, 모두 조선적인 세계의 고고한 상징이라고 할 만한 신성한 ‘산’ 내지 그 ‘정상(頂上)’의 세계를 시적 공간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김중환의 내심 속에는 당시 그가 평단에서 내내 주장해온 바 있는 ‘지방주의 문학론’과 더불어 이른바 ‘조선적인 것의 사수’(大村益夫)가¹⁵⁾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도 인정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다.

김중환의 위와 같은 작품 선택 성향 속에서 다중적(多重的) 차원의 민족주의

13) 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궁핍한 시대의 시인』(민음사, 1977) 52-53쪽.

14) 최동호, 「장수산과 백록담의 세계」 『현대시의 정신사』(열음사, 1985) 322쪽.

15) 大村益夫, 앞의 글, 같은 쪽 참조.

적 요소를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김소운은 김중환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시 정지용만을 대상으로 해서, 김소운이 번역한 작품의 목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제명	초출	최초 수록시집	金素雲『朝鮮詩集』제목
카예·프랑스 스	學潮 1926.6	『鄭芝溶詩集』 1935.9	カフエーフラン
故郷	東方評論 1932.7	『鄭芝溶詩集』 1935.9	ふるさと
紅疫	카톨릭靑年 1935.3	『鄭芝溶詩集』 1935.9	紅疫
不死鳥	카톨릭靑年 1934.3	『鄭芝溶詩集』 1935.9	不死鳥
臨終	카톨릭靑年 1933.9	『鄭芝溶詩集』 1935.9	臨終
나무	카톨릭靑年 1934.3	『鄭芝溶詩集』 1935.9	樹
갈릴레아의 바다	카톨릭靑年 1933.9	『鄭芝溶詩集』 1935.9	ガリラヤの海
조약돌	東方評論 1932.7	『鄭芝溶詩集』 1935.9	石ころ
時計를 죽임	카톨릭靑年 1933.10	『鄭芝溶詩集』 1935.9	時計をころす
朝餐 *	文章 1941.1	『白鹿潭』 1941.9	朝餉
琉璃窓	朝鮮之光 1930.1	『鄭芝溶詩集』 1935.9	琉璃窓
白鹿潭 *	文章 1939.4	『白鹿潭』 1941.9	白鹿潭 16)

(밑줄 및 '*' 표시 : 인용자)

김소운은 정지용의 최초기작으로서 식민지 유학생의 비애를 그린 <카페 프랑스>, 주지주의적 작시 태도의 교범이라 할 수 있는 <유리창>, 그리고 고향 상실의 정서 및 비관적인 자기정체성을 그린 <고향> 및 <조약돌>, 그리고 『카톨릭청년』에 연속 수록되었던 그의 카톨릭 신앙시편들, 마지막으로 『白鹿潭』의 대표작 <백록담>을 수록하고 있다. 카톨릭 시들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전체적인 주제는, 김중환이 선택한 작품들에 비해 보다 소박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기상으로 본다면, 초기, 중기, 후기 작품들이 골고루 선택되어 있으며, 그 주제 역시도 비교적 다양하게 안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김소운은 정지용의 전작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골고루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16) * 표시된 작품은 『설백집』에도 동시에 번역·수록되어 있는 작품임. 밑줄 친 작품들은 1954년 출간된 압파문고판 『조선시집』에서 삭제된 작품들이다.

왜냐하면 총 12편의 작품 중 반수에 해당하는 6편의 작품이 정지용의 중기작품, 특히 정지용 연구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카톨릭 시 쪽 분야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¹⁷⁾ 이렇게 보면, 김소운은 정지용의 작품 중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을 정도 이상으로 과다하게 선택했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 중, 특히 『白鹿潭』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과다하게 제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정지용의 작품 선택이라는 면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김소운의 작업은 균형있는 선택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김소운이 번역작업 시에 겪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원자료 확보상의 문제다. 그 직접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김소운이 쓴 『朝鮮詩集』 서문 내용의 일부다.

현재 내 수중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문장』 창간호부터 종간까지 20여 책, 『인문평론』 제2권 이하 약 10책, 『카톨릭 青年』 창간호 이하 19책, 기타 『문예운동』 『조광』 등 수책.

『춘원시가집』 이광수, 『안서시집』(김억), 『소월시초』 김정식, 『님의 침묵』 한용운, 『해당화』 김동환, 『초원』 김태오, 『현해탄』 임화, 『사슴』 백석, 『화사집』서정주, 『와사등』 김광균, 『산호림』 노천명, 『태양의 풍속』 김기림, 『향수』 조중치, 『성벽』 오장환, 『청마시초』 유치환 기타 두세 권의 개인시집

현대조선문학전집 중의 『시가집』(조선일보사 출판국), 『현대서정시선』(박문문고), 『현대조선시인선집』(조선문고), 『신선시인집』(시학사 편).

그리고는 제2안에 기초해서 보내온 자선작품 200편 정도, 일간지, 종합잡지에 발표된 걸 오래낸 것 약간, 이것뿐이다.¹⁸⁾

확실히 『정지용시집』과 『백록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지용의 『백록담』에 수록된 수작들인 <백록담>, <장수산>, <구성동>, <인동차>, <조찬> 등 중에서 <백록담>(『문장』1939.4)과 <조찬>(동, 1941.1)만이 선택된 연유를

17) 정지용의 카톨릭 시에 대한 비판적 입장 제시 및 권한, 송옥 등 관련 논의들의 소개는 김윤식, 「가톨릭시즘과 미의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84) 429-434쪽 참조

18) 金素雲, 『朝鮮詩集』(前期) (興風館, 1943.8) 18-19쪽.

추측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과연 김소운이 자료 부족 때문에 정지용의 나머지 작품들을 선택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위에서 김소운은 “『문장』 창간호부터 종간까지 20여 책”을 갖고 있었다고 한 바 있는데, 창간호(1939.2)부터 종간(1941.4)까지 간행된 『문장』은 전부 합쳐서 26권에 지나지 않다. 이것은 김소운은, 적어도 『문장』에 한해서는 거의 자료 부족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20여 책”의 『문장』에 <백록담>과 <조찬> 이외의 작품들, 즉 <忍冬茶>(1941.1), <九城洞>(1937.6), <長壽山>(1939.3) 등은 물론, 나중에 『백록담』(1941)에 수록되는 총 14편의 수작(秀作)이 수록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로 『문장』에 수록된 정지용의 작품 목록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호(1939.1.1) <長壽山>1, 2

3호(1939.4.1) <春雪>, <白鹿潭>

22호(1941.1) <朝餐>, <비>, <忍冬茶>, <붉은 손>, <꽃과 벗>, <盜掘>, <禮裝>, <「나비」>, <호랑나비>, <진달래>

(밑줄 ; 인용자)

이상의 작품은 모두가 『백록담』에 수록된다. 밑줄 친 작품들이 김소운이 번역한 작품들이며, 22호에 다수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보면, 김소운이 적어도 『문장』 3호와 22호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소운은, 정지용의 전작품 중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문장』 수록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고의로 이런 종류의 작품을 제외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정지용의 후기작을 기피하는 경향은, 김소운이 해방 후에 출간한 암파문고(岩波文庫)판 『朝鮮詩集』(1954)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는 『백록담』 수록 시들을 추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작품 <백록담>을 <유리창>과 더불어 삭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두 권 분량의 『조선시집』(전기, 중기, 1943)을 문고판으로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작품 수를 대폭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¹⁹⁾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작품 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역자가 어느 작품을 살리고 어느 작품을 빼는가, 하는 그 결정 과정을 봄으로써,

역사가 해당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다. 김소운은 이 선택의 과정에서, 카톨릭 시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백록담』의 정수에 해당하는 작품인 『백록담』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소운이 이상할 정도로 정지용의 카톨릭시들에 집착하는 한편, 『백록담』 수록 시들의 선택에는 극히 인색했던 데에 일종의 내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적 이유에 대한 본격 검토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넘는 일이긴 하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해 두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지용의 카톨릭 신앙시들은 일본어로의 번역이 비교적 쉬웠을 점이라는 점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지용 시가 전체적으로 형상미가 뛰어난 만큼, 해독에 난점 역시도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그의 카톨릭 신앙시만은 예외적이어서, 언어 형상이나 시형, 어휘 등의 면에서 평범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그의 신앙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 ‘번역하기에는 편하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 말고도 김소운은 평이한 수준의 한국시를 ‘훌륭한 일본시’로 바꿔 번역해내는 능력을 보여준 바 있기도 하지만,²⁰⁾ 김소운은 바로 이런 편리

19)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소운은 『朝鮮詩集』(興風館) 두 권을 『朝鮮詩集』(創元社, 1953)으로 집성(총 45명 180편)했다가, 이를 다시 암파문고 판(40명 120편)으로 재편했다.

20) 여기에서, 김소운의 역시 선택의 한 특징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예 하나를 제시해 두기로 한다. 이하운은, 정형적인 시형 및 시적 긴장도가 떨어지는 어휘와 통사, 빈약한 시적 상상력으로 인해 한국시사에서는 변방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시인이다. 김소운은 바로 그의 「나는 들에 핀 국화를 사랑합니다」 및 「일허진 무덤」 같은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한 바 있다. 물론 김소운은 이를 명치시 대적인 언어미를 잘 활용·번역하여 일본 문단의 주목을 끈 바 있다. 말하자면, 김소운은 ‘평이한’ 수준의 한국시, 바꿔 말해 본인의 입맛에 맞는 ‘번역하기 쉬운’ 작품을 선택하여 이를 ‘훌륭한 일본시’로 둔갑시킨 셈인데, 이 속에 김소운의 번역이 갖고 있는 장단점 및 번역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김소운의 이하운 시 번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김윤식의 앞글, 「김소운과 조선시집의 사상」 186-191쪽 및 동, 「한국근대문학사의 시선에서 본 김소운」(『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93-194쪽 및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앞글, 「김소운은 무엇을 했는가」 338-345쪽 참조.

성 때문에 정지용의 카톨릭 시편들을 다수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정지용의 후기시편들, 특히 『백록담』에 수록된 시편들은 ‘언어의 마술사’인 그의 언어 형상력이 최고도에 도달했던 시기의 작품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이 어려운 정지용만의 의고체적 어미, 의미 불명의 신조어들, 그만의 뉘앙스를 지닌 의성·의태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연구자들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²¹⁾ 그런 의미에서 정지용의 『백록담』 수록 시편들은, 번역자의 입장에서 적지 않게 부담이 가는 대상이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세번째,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김소운은 원작의 “어구를 대담하게 깎아서 문맥성을 희박하게 하고, 남은 어구를 모자이크식으로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서정적인 분위기를 갖는 어구를 삽입시”키는 스타일의 번역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그런 김소운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적 완성도가 높은 정지용의 후기 시편들은, 편하게 “깎아내”고 재작업에 들어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는, 역시 자신의 작업 성향에 맞춰서 원작을 보다 편하게 손질할 수 있는 카톨릭 시편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김중환과 김소운은 정지용의 시 선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사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소운이 약 반수나 카톨릭 작품을 선택한 특징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정지용 시 속에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들을 골라서 번역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적인 차이점은 존

21)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지용의 시에 등장하는 난해어휘들에 대한, 신뢰 가능한 주석 작업이 붙은 원본 자료집이 국내에서 본격 출간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의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어적 발상에 기초한 어휘에 대한 본격적 규명작업 역시도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역시 근래에 발표된 바 있다. 각각 이승원 주해, 『원본 정지용시집』(깊은샘, 2003.7),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鄭芝溶』(역락, 2002) 참조.

22) 사에구사 도시카쓰, 앞의 글, 344쪽.

재한다. 즉 김소운은 고향 상실감이나 식민지 청년의 비애적인 자화상과 같은, 즉 “망국의 비애”를²³⁾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작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해 김중환의 경우는 민족의식이 작품 속에 고도로 내면화 내지 승화되어 있는 작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이라면 김중환이 조선적인 것의 강조, 그리고 최고 수준의 한국시를 선보이려는 질적인 ‘정예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데 반해, 김소운은 정지용의 전 시기 작품을 대상으로 골고루 선택하려는 ‘양적 충실주의’를 일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작품 수준이 떨어지는 카톨릭 신앙시에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정지용 시의 최고봉인 『백록담』 수록 시는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점 역시도 김소운의 작품 선택상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번역 스타일의 문제

김소운의 번역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그는 “원시의 재창조”를 모토로 삼고 있으며, 번역방법상의 근원을 명치시대 ‘명역시집의 체험’에 두고 있는 시인으로서²⁴⁾ ‘원시보다 일본시로서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시의 의미를 대담하게 바꾸는 방법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문어(文語)를 구사하는 스타일의 소유자’²⁵⁾ ‘텍스트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며’ ‘원시를 훼손한 후에 서정적 요소를 첨가하는 작업’의 소유자라는 평가²⁶⁾ 등이 그것이다.

김중환의 경우 역시도 일정한 평가가 나와 있다. “고어의 구사 면에서는 김

23) 일본 지식인이 식민지 조선을 ‘비애적 정서’를 통해 바라보는 관습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이래의 오랜 전통이다. 김소운과 일본 지식인들의 이 ‘비애적 정서’와 관련된 긍정적 언급은 임용택, 앞의 책, 67쪽 참조. 비판적 언급은 김운식의 앞글,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선에서 본 김소운」 194쪽 참조.

24) 임용택, 앞의 책, 15쪽 참조.

25) 白川豊, 앞의 글, 103쪽 참조.

26) 사에구사 도시카쓰, 앞의 글, 335쪽, 343쪽 참조.

소운에 미치지 못했을지도 모르나, 현대어 면에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의 소유자²⁷⁾, ‘알기 쉬운 문체’를 구사하나 때로 ‘원시의 의미를 완전히 재창작하는 스타일’의 소유자²⁸⁾ 등의 평가가 그것이다. 여기서, 이미 임용택에 의해 한 번 검토된 적은 있으나, 김종한과 김소운이 유일하게 같이 번역한 작품인 <조찬>의 번역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두 사람의 번역 스타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朝餐	朝餉	朝餐
해나살 피여 이윅한 후,	日出でて 暫し、	陽ざしが綻び やがて
머흘 머흘 꿀을 옮기는 구름.	凜々 谷移す雲。	ふうわりふうりと谿から谿へ 雲が移り始める
桔梗 꽃봉오리	桔梗の蕾	桔梗の花がゆさぶられ
흔들며 씻기우고.	揺れ淨まり	洗われ
차돌부리 축 축 죽순 돋듯.	筍さながらに 石の根の生ふ。	方解石は 心から濕り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齒に透る 水の音。	水の音に 齒の根がしびれる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日向擇りて うづくまり、	いずまいをかえて 日なたに跣がみ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鳥とわびて 白き飯啄む。 (김소운)	さみしい鳥となって 白い飯粒を啄ばむ ²⁹⁾ (김종한)

27) 大村益夫, 『朝鮮近代文學과 日本』(綠蔭書房, 2003.10) 207쪽 참조.

28) 임용택, 앞의 책, 211쪽 참조.

29) 김소운, 『朝鮮詩集』 전기, (興風館, 1943.8) 193-195쪽.

김종한, 『雪白集』(博文書館, 1943.7) 16-18쪽. 『全集』 246-248쪽.

두 작품 모두 원작에 붙어 있는 독음(讀音) 표시는 생략했음.

정지용의 시 <조찬>은 자연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즉물적 감각으로, 그것을 간결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한편으로, 자신에 대한 연민적인 감정을 “양지쪽에 쫓그리고” “밥알을 쫓는”, “서러운 새”에 투사한 방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각 행의 길이가 매우 짧으며, 각 행 당 리듬이 거의 2음보 혹은 그 이내로 통일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연 끝을 명사로 마감하거나 모든 연 끝에 구두점을 첨가하여, 각 연의 완결감을 극대화하려 한 시적 의장들이 두드러져 보이는 작품이다.

원작의 주제와 시적 의장들을 고려에 넣고 볼 때, 김소운과 김중한의 번역 결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우선 두 번역시의 외형적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김소운 쪽이 짧고 김중환이 긴 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김소운이 원시의 구두점을 살리고 있는 점, 김중환은 구두점을 모두 삭제해 버린 점 역시도 드러난다. 이것만을 근거로 하여 번역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원작의 형태와 리듬 면에서 본다면, 김소운 쪽이 보다 충실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가능하다. 1연부터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해入살 / 피여
이윅한 / 후,

日出/でて
暫し、

陽ざしが/綻(ほころ)び
やがて

일단 원작과 번역시 모두에 음보 분할을 해보았다. 김소운과 김중환은 모두, 1행은 2음보, 2행은 1음보로 번역했는데, 김중환 쪽은 1행 쪽의 두 음보 모두가 4음절로 늘어나 있어 둔중한 감을 준다. 이에 비해, 김소운 쪽은 2음절씩으로 나뉘어 있어 간결할 느낌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원작의 음절수와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원작의 의미 전달 면만 본다면, 김소운의 “日出でて”보다 김중환 쪽이 훨씬 더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2연을 본다.

머흘 / 머흘
골을(/) 옮기는 / 구름.

凜々
谷(/)移す/雲。

ふうわり/ふわりと/谿から/谿へ
雲が/移り(/)始める

행의 길이나 리듬 분할과 관련해 볼 때, 전작을 통해서 두 사람 간의 차이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작의 2음보를 김소운은 1

음보로, 김종한은 무려 4음보로 늘어 번역했다. 명사로 끝맺은 원작의 2연은, 김소운은 같은 명사로, 김종한은 서술형으로 늘어 번역했음이 드러난다. 3연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가운데, 김종한이 원작의 명사구를 서술문으로 바꿔놓은 것이 눈에 띈다. 4연을 보기로 한다.

차돌부리 筍/さながらに 方解 (ほうげ) / 石 (しゃく) は

촉 촉 / 죽순 / 돋듯. 石의(/)根の/生ふ。 心(しん)から/濕(しめ) り

한국어로 직역해 보면, 김소운은 "죽순처럼 / 돌부리 돋다"로 번역하였다. "차돌"과, 원작의 의태어 "촉촉"이 갖고 있는 느낌을 전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원작의 원관념과 보조관념과의 순서(차돌부리-죽순)를 거꾸로 뒤집어 번역한 점(죽순-차돌부리)이 눈에 띄는데, 문제는 김종한이다. 원작의 '차돌'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리려 한 것 같으나, '석영(石英)'이라는 어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석영'도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어로서 적절한지는 의문이나 - 일반인에게 더욱더 생소한 전문용어인 "방해석(方解石)"으로 번역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차돌이 흙 위로 흰 색깔을 조금씩 드러낸 모습을, "속으로 젖어"라고 번역한 것은, 돋아난 죽순의 촉촉한 느낌을 깊이있게 전달하려 한 의도의 산물인 것 같긴 하나, 즉물적 방법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원문을 지나치게 내면화된 감각으로 번역하면서 오히려 원작의 맛을 훼손시킨 듯한, 혹은 개악(改惡)한 듯한 느낌이 든다.

물 소리/ 에	齒に透/る	水の/音に
이가 (/) 시리다.	水の/ 音。	齒の根が/しびれる

5연은 김소운의 언어감각이 최대한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김종한 쪽은 완벽한 직역이라 해도 될 만큼 원작에 매우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함이 있다면, 2행의 '2/3' 음절을 모두 '4/4'음절로 번역하여, 마치 4.4조 가사(歌辭)의 일절처럼 리듬감이 무거워져서 원작의 가볍고도 간결한 맛이 사라진 점이라 하겠다. 이에 비하면, 김소운은, 직역하자면 "이에 스미는/ 물소리"로 번역하였는데, 원작의 간결한 음절수를 최대한 재생하면서, 연 끝도 명사로 마감

하여 완결감을 최대로 발휘했다. 즉 원작의 통사 구조나 의미는 다소 변형했지만, 그 대신 원작이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간결미나 즉물적인 이미지 감각은 재생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앉음새 / 갈히여	日向/擇りて	いずまいを/かえて
양지 쪽에 / 쪼그리고,	うづくま/り、	日なたに/踞がみ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은 번역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김종한은 고지식할 만큼 원작에 충실하다. 반면 김소운은 다시금 원작의 통사구조를 바꾸고 있다. 직역하면, "양지쪽 골라 / 쪼그려 앉아" 쫘이 되겠는데, 이것은 역시 원작의 통사구조를 해체한 후에 이를 일본어 통사구조로 재생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상의 결과는 김소운과 김종한의 번역 스타일에 대한 기왕의 견해들과 잘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김종한은, 부분적으로 오역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일탈적인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현대어를 사용하여 원작의 어휘나 통사구조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번역하는, 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번역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작이 갖고 있는 전체적 느낌이나 독특한 시적 의장, 리듬 등이 상당히 파괴되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김소운은 김종한과는 대조적으로, 때로는 과격할 정도로 원작의 어휘나 통사구조를 삭제 혹은 변형, 전도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도를 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김소운은 원작의 어휘나 통사구조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일단 해체한 후에, 문어(文語)가 다수 섞인 일본어적인 상상력을 출발점으로 하여, 원작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시적 의장, 의도 등을 '창조적'으로 재생해내는 번역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경탄을 자아낼 정도의 균형감이나 섬세함을 수반하고 있어, 기왕의 김소운 신화가 갖고 있는 무게를 실감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IV. 결론

본고는, 김종한의 번역시집 『雪白集』의 번역사상의 위치를 규명하고, 그간 신화적인 명성을 누려 온 김소운의 『朝鮮詩集』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데 주목표를 둔 논문이다.

김종한의 『설백집』은 김소운의 『조선시집』과 달리, 앤솔로지로서의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수한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는 역시집으로 보인다. 그 목적성은, 고차원적으로 승화된 민족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작품의 형상적 수준이 뛰어난 정지용의 후기시와 백석의 시를, 그가 주된 번역 대상으로 선택한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는, 자신이 “지방주의 문학론”을 통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내선일체 - 조선문학의 해체 및 일본문단과의 편입을 의미하는 - 를 강제하는 시국의 폭풍에 타협하면서도, 한국문학의 민족적 독자성을 최대한 담보하려는 의지를, 이 역시집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절적 정예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반면 김소운은 민족주의적 요소를 제시하려는 점에서는 김종한과 유사하나, 그가 선택한 시 속에 내포된 정서가 소극적이고 비애적인 측면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정지용의 작품을 시기적으로 골고루 선택·안배하려는 ‘양적 충실주의’를 의도하고 있었던 듯하나, 실제로는 작품 가치가 떨어지는 카톨릭 시편들을 반수나 선택한 점, 그리고 정지용 시편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백록담』 수록 시편들의 선택에 인색했던 점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정지용의 <朝餐>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번역 스타일을 살펴 본 결과, 비록 원작의 어휘나 통사구조의 해체를 즐기는 면은 있으나, 김소운은 문어를 적극 구사하면서, 리듬이나 이미지 등 작품 전체의 뉘앙스를 세심하고도 능숙하게 일본어적 상황으로 재현하는 번역 스타일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종한의 경우는 주로 구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쉽고, 원작에 충실한 면모는 있으나, 리듬, 이미지 등 전체적인 뉘앙스를 재현하는 면에서는 김소운보다 그 역량이 떨어지는 점, 일부 도가 지나친 개악(改惡)적 부분이 있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김종한, 김소운, 정지용, 백석, 설백집, 조선시집, 백록담, 지방주의문학론, 번역시, 일역시, 친일문학

참고문헌

<자 료>

- 金素雲, 『朝鮮詩集. 乳色の雲』 東京: 河出書房, 1940.5
_____, 『朝鮮詩集』 前期, 東京: 興風館, 1943.8
_____, ----- 中期, 東京, 興風館, 1943.10
_____, 『朝鮮詩集』 東京, 創元社, 1953.3
_____, 『朝鮮詩集』 東京, 岩波文庫, 1954.11
_____, 『金素雲 對譯詩集』 上中下, 釜山: 亞成出版社. 1978.10
金鐘漢, 『雪白集』 京城: 博文書館, 1943.7
이승원 주해, 『원본 정지용시집』 서울: 깊은샘, 2003.7
오양호·佐野正人·심원섭·林隆 역, 『鄭芝溶詩選』 東京: 花神社, 2002
藤石貴代·大村益夫·沈元燮·布袋敏博, 『金鐘漢全集』 東京: 綠蔭書房, 2005.7

<논 저>

-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서울: 민음사, 1977, 52-53쪽.
김광림, 「김종한 소론」, 『박남수·김종한』 한국현대시문학대계21, 서울: 지식산업사, 1982, 230-236쪽.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1984, 429-434쪽.
_____, 『지상의 빵과 천상의 빵』 서울: 숲, 1995, 186-191쪽.
_____,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2 193-194쪽.
_____, 『일제 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3.8, 175-198쪽.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鄭芝溶』 역락, 2002, 106-126쪽.
사에구사 도시카쓰, 「김소운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338-345쪽.
심원섭, 「명징과 무욕의 이면에 있는 것」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연구』 평민

사, 1999 48-55쪽.

유 정, 『好漢孤獨 金鐘漢』 『현대문학』 1963.2, 288-291쪽.

임종국, 『친일문학론』 서울 : 평화출판사, 1966, 232-239쪽.

최동호, 『장수산과 백록담의 세계』 『현대시의 정신사』 서울:열음사, 1985 322쪽.

——, 『산수시의 세계와 은일의 정신』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서울:한길사, 1990

金達洙, 『太平洋戦争下の朝鮮文學』 東京: 『文學』 1961.8, 77-88쪽.

金文洙, 『金鐘漢のこと』 『民主朝鮮』 1946.4, 33-35쪽.

大村益夫, 『金鐘漢につい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朝鮮歴史論集下』 1979. 3, 204-206쪽.

大村益夫, 『朝鮮近代文學と日本』 東京: 緑蔭書房, 2003.10 207쪽.

藤石貴代, 『金鐘漢論』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7輯, 1989.1, 199쪽.

白川豊.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 岡山: 大學教育出版 1995.7, 103쪽.

林容擇, 『金素雲, 『朝鮮詩集』の世界』 東京 : 中公新書, 2000.10, 211쪽.

川村湊, 『酔いどれ船の青春』 東京 : 講談社, 1986.11, 83쪽.

<Abstract>

A Study on Kim Jong-Han and Kim So-Un's Translation of Jeong Ji-Yong's Poem

Shim, Won-Sup

Kim Jong Han had translated many poems, and published a collection of poems called "White Snow". This study shows that I have examined what kind of literary significance "White Snow" has had closely in Korean literary history, and reviewed a Joseon collection of poems which is written by Kim So Un.

It seems that Kim Jong Han's "White Snow" is a little different from Kim So Un's Joseon collection of poems, and Kim Chong Han did not consider the function of the anthology, and tried to give his collection of poems special finality. He translated Jeong Ji-Yong's latter and Baek Seok's poems mostly which are wonderful works, and sublimated nationalism in art highly. I think that this fact revealed his special finality.

In his "regionalism literary theory", while he agreed that Joseon literature was absorbed into Japan literature, I wonder if he tried to keep the originality of Korean literature as much as he could, make it public.

On the other hand, Kim So Un is similar to Kim Jong Han in that Kim So Un suggested nationalistic element. But his selected poems had a certain passive and sorrowful shade.

Also he intended to select and arrange Jeong Ji Yong's works chronologically and amply in a quantitative respect, but half of them are about Catholic faith, and they have less artistic value than the poems which are included in a collection of poems called Baek Rok Dam which means the pond for white deer to play in.

When Kim So Un translated Jeong Ji Yong's work, "Breakfast", he used written language actively and recreated the poem that had a slightly Japanese shade in rhythm and image. On the other hand, we can understand it easily because Kim Jong Han used spoken language and it was faithful to the original work. But when he reproduced the rhythm and image that the original work had, he is far behind Kim So Un's ability, he changed the poem for the worse.

Key Words : Kim Jong Han, Kim So Un, Jeong Ji Yong, Baek suk, seo-lbek-chip, Joseon collection of poems, Translation, regionalism literary theory